

제3장: 지정학 코드: 자신의 지정학적 견해를 규정하는 행위자

요약

지정학 코드란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 자신을 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세계 각국은 다음의 다섯 가지 계산을 통해 지정학 코드를 규정한다.

- 1) 누가 우리의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 동맹국인가
- 2) 누가 우리의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 적국인가
- 3) 어떻게 동맹국을 유지하고 잠재적 우방국을 묶어둘 것인가
- 4) 어떻게 현재의 적국과 향후의 위협을 제어할 것인가
- 5) 위의 네 가지 계산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지구 공동체에게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이러한 계산은 충절과 갈등의 역사, 그리고 지역적·지구적 맥락에서 형성된다.

국가들은 우방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데, 가장 강력한 사례는 NATO와 같은 가맹국 전체에 대한 상호 방위를 약속하는 군사적 커넥션이다. 이외에도 군사장비 판매, 군사훈련 등 역시 국제적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고, 약한 구매자를 강력한 판매자에 묶어두기도 한다. 반대로 적국을 제어하는 수단으로는 과거 핵능력을 바탕으로 확전을 막고자 했던 '상호확증파괴(MAD)'와 같은 군사적 억지력부터, 외교적 협상, 국제적인 제재와 보이콧 등의 비군사적 수단까지 다양하게 활용된다. 다섯 번째 요소인 정당화 역시 중요한데, 적을 격퇴하려는 정부는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을 '야만적'이거나 '악'으로 묘사하며 표상적 지정학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적의 정치는 비이성적이며 전쟁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논리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적 신화에 기반해 포장하게 된다.

지정학 코드는 행위자의 영향력에 따라 소지역, 지역, 지구 규모로 나눌 수 있다. 많은 나라가 지니고 있는 소지역 지정학 코드는 인접한 이웃나라와의 관계에 주된 관심을 갖는다. 지역 지정학 코드는 이웃나라의 범위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를 뜻하는 데, 그 사례로는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정책, 아랍세계에서 이집트의 역할 등이 있다. 지구 규모의 지정학 코드를 주장하는 나라에는 세계 지도국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이것을 주장한다. 이들은 다른 국가들의 '추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 자신의 의제에 추종 국가들이 동참하게끔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 코드들은 서로 분리될 수는 없다. 냉전 종식 이후 유전과 가스전이 발견된 카스피해와 중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다양한 규모의 지정학 코드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내 각국의 소지역 지정학 코드, 러시아와 중국의 지역 지정학 코드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개입을 확대하는 미국의 지구 지정학 코드가 충돌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세뇌하는 세계 리더십과 이에 도전하는 신흥국의 지정학 코드는 충돌해왔다. 영국의 지정학자인 핼퍼트 매킨더 경은 독일의 유라시아 심장지역(heart land) 장악을 막고 대영제국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막강한 해군력 중심의 전 지구적 영향력 체계를 주장했다. 영국은 군비 경쟁과 전쟁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인류 전체의 이익과 기독교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희생으로 포장했다. 반면, 세계 리더십에 도전하던 독일은 루돌프 키엘렌과 프리드리히 라첼의 지정학 이론에 기반해 팽창주의적 지정학 코드를 채택했다. 유럽 내 영토 확장은 지주 귀족의 선호를 반영한 것이었으며, 산업가들은 시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식민지와 시장을 개척하는 '세계정치(Weltpolitik)' 정책을 추진했다.

세계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지정학 코드는 국제 권력 구조의 변화에 따라 크게 두 번의 변화를 겪었다. 첫번째 변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들어서며 NSC-68이라는 핵심 문건을 통해 지구 규모의 지정학 코드를 확립한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자유 제도에 대한 공격이자 화해할 수 없는 가치 체계로 규정하고, 소련의 팽창을 막고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정책을 전세계적으로 펼쳤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 미국적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한 임무로 이러한 지정학 코드를 포장했으며, 이를 할리우드 영화와 같은 매체를 통해 내면화하였다.

이러한 세계 지도국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비국가 행위자 역시 지정학 코드를 통해 세계 지도국에 도전한다. 빈 라덴과 알카에다는 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반면, 동맹은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무슬림의 단결을 촉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성한 아라비아 반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 세력을 '십자군'이라는 역사적이고 적대적인 언어로 규정했다. 그들은 미국에 대한 무장 투쟁과 테러를 신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화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두번째 변화를 통해 대응하는데, NSS와 '부시 독트린'이 그것이다. NSS는 테러리즘이라는 모호한 적대 대상을 "불량 국가들"로 규정하며 명확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테러리즘을 지정학적 위협으로 정의함으로써, "선제공격"을 이에 대응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도입하였다. 테러리즘, 테러리즘의 국가 지원,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연결해 적국을 자신들이 대표하는 번영, 평화, 문명의 대척점으로 포장해 지정학 코드를 정당화하였다.

발제문 - 플린트의 지정학 코드와 비국가 행위자

서론

제3장에서 플린트는 지정학 코드를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 자신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며, 이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계산 법을 제시한다(p. 102). 저자는 이러한 지정학 코드를 영국의 이라크 참전, 헝가리의 NATO 가입, 냉전 시기 미국의 정책 등, 주로 국가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데 활용한다. 그러나 국가 외에 알카에다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행동 양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모델을 확장하여 적용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오사마 빈 라덴의 파트와를 분석하며 이것 역시 “미국의 세계 리더십에 도전하는 지정학 코드”였다고 주장한다(pp. 125-126).

본 발제는 해당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한 ‘나라’가 세계를 향해 자신을 투사하는 방식인 지정학 코드를 초국가적이고 탈영토적인 비국가 행위자에게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플린트의 지정학 코드 모델이 지닌 영토의 존성을 비판하고, 비국가 행위자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본 다음, 네트워크에 기반해 스케일의 한계를 벗어난 대안적 모델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플린트의 지정학 코드에 내재된 영토 의존성

플린트가 제시한 지정학 코드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는 본질적으로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가를 전제로 한다. 특히 동맹 유지 및 적국 제어의 수단을 살펴보면 이러한 점이 더욱 잘 드러난다.

플린트가 제시한 우방국을 유지하는 수단으로는 경제관계, 군사적 관계, 문화 교류 등이 있다. 반대로 적국을 제어하는 수단을 살펴보면 상호확증파괴, 외교적 협상, 경제적 제재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모두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조세 징수권, 폭력의 독점, 제도화된 외교 채널을 보유한 주권 국가들이 실행하고, 또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략들이다.

나아가 지정학 코드의 다섯 번째 요소인 정당화 역시 국가와 국민이라는 틀 안에서 작동한다. 정부는 적을 ‘야만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표상함으로써 전쟁을 정당화한다. 이는 여론의 동원이라는 국내 정치와 연결되며,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안에서 작동한다. 물론 빈 라덴 역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파트와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 계산을 다시 살펴보면, 네 가지 계산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를 고민한다고 한 반면, 빈 라덴은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여론 조성이었다. 반대로, 영국, 독일, 미국 등 국가 행위자의 다섯 번째 계산은 주로 자국민을 향한 정당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양상이 다르다.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의 지정학적 이질성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여기서는 오

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와 같은 초국적 테러 네트워크를 사례로 들어 이러한 이질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동맹 규정의 공간적 성격이 다르다. 국가의 동맹이 영토적 안보와 지정학적 이익에 기초한다면, 알카에다의 동맹은 탈영토적이다. 플린트 역시 지정학 코드의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인접한 이웃나라와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하였다(pp. 106-107). 반면, 알카에다는 동맹을 특정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무장이 요구되는 주체를 "모든 무슬림"으로 규정했다(pp. 125-126). 이는 동맹을 지리적 인접성을 초월해 종교적 정체성에 기반해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정학적 영토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네트워크적 관계 형성이다.

다음으로는 수단과 표상의 경계가 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플린트의 모델에서 국가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후에 국민에게 이를 정당화하는 구조를 지닌다. 반면, 알카에다는 종교적 담론 그 자체가 목적이자 수단이며, 또 동시에 정당화 그 자체이다. 빈 라덴은 미국인에 대한 공격을 "신의 명령"으로 해석하여 보상을 약속했다(pp. 125-126). 플린트 역시 이러한 신성한 의지에 의존하는 것을 동맹을 유지하는 수단인 동시에, 정당화로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요소가 혼합된 것이 다른 행위자와는 다르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목표가 영토 획득 또는 통제권 확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지정학적 코드는 특정 지리적 권역에 대한 통제를 목표로 한다. 이는 세계 지도국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도전을 하는 국가의 지정학 코드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일 역시 레벤스raum 확장 또는 식민지 확보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반면, 알카에다의 목표는 미국이 지닌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권위에 타격을 입히는 것 그 자체에 있다.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무슬림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지, 근대 국가의 영토 확장과는 그 맥락을 달리한다.

대안적 모델

결론적으로 알카에다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행동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영토 중심의 지정학 코드를 넘어서는 대안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발제는 네트워크 기반과 탈스케일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토에 기반한 사고에서 벗어나 노드(node)와 링크(link)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이 필요하다. 초국적 테러리스트 집단이나 NGO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은 고정된 영토를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이들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경을 넘나드는 연결망을 통해 행동한다. 이들의 지정학은 영토 위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연결과 단절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지도 상의 물리적 거리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지정학 코드가 아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또한, 플린트가 제시한 소지역, 지역, 지구 단계로 위계가 형성되는 지정학 코드의 규모 역시 극복해야 하는 한계이다. 알카에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는 미군 문제나 이스라엘-아랍 갈등이라는 지역적 이슈를 전 세계 무슬림 대 '십자군'이라는 지구적 종교 전쟁의 스케일로 격상시켰다. 지역적 지정학적 위협을 지역 내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전 지구적 규모로 담론화 한 것이다. 플린트는 세계 지도국을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지정학 코드의 주된 행위자로 주목했지만, 영토도 없고 군사력도 미미한 비국가 행위자가 이러한 스케일의 지정학 코드를 만들어낸 것이다. 비국가 행위자들은 이처럼 고정된 스케일에 종속되지 않고, 유동적인 스케일의 담론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 스케일의 위계는 이들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 적절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스케일의 위계를 벗어나 각 행위를 동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이트너(Leitner, 2004)는 스케일의 위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고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기반의 모델과 탈스케일의 모델은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결론

플린트의 지정학 코드는 전통적인 국가 간 패권 경쟁을 설명하는 데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국가는 여전히 국제 정치에서 핵심적인 행위자이며, 이들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이 필요함 역시 분명하다. 그러나 해당 모델이 전제하고 있는 영토성과 국가 중심성은 현대 국제 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는 비국가 행위자의 행동 양상을 포착하기에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오늘날의 지정학적 갈등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지정학적 모델에서 벗어나, 보다 더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모델이 필요하며, 본 발제에서는 그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와 탈스케일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참고문헌

- Leitner, H. (2004). The Politics of Scale and Networks of Spatial Connectivity: Transnational Interurban Networks and the Rescaling of Political Governance in Europe. In E. Sheppard & R. B. McMaster (Eds.). *Scale and Geographic Inquiry: Nature, Society, and Method* (pp. 236-255). Blackwell Publishing.